

# 광주전남 정책Brief

GJERI ISSUE PAPER

2023/7.17.

GJERI POLICY BRIEF | No. 270 · 발행처 | 광주전남연구원 · 발행인 | 광주전남연구원장 · 편집위원회 | 조창완, 김현철 ※ 내용문의 : 조인형(ihcho@gjcri.kr)

## 문화격차 실태와 문화자치 강화 방안

조인형 책임연구위원

### 주요내용

- 2000년대 이후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 등과 관련된 담론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제기
  - 지역문화는 문화정책이 운영되고 작동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책 의제화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중심의 담론 형성
- 지역문화진흥의 전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격차의 존재 유무와 형태를 파악하고 대안으로 도입된 문화자치 관련 담론을 정리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문화격차 형태와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자치 관점의 정책제언

#### 1. 지역 간 문화격차 형태

- 공공부문 관련 문화향유 기회와 만족도 차원의 지역 간 문화격차는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화격차(정부·지자체 차원), 소득, 장애 등에 따른 격차와 결핍(개인적인 차원)은 잔존
-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 민간분야의 투자에 의한 지역 간 격차 존재

#### 2.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자치 확대

- 지역 여건, 인적·물적 가용자원, 수요 파악이 용이한 지자체 중심의 정책기획 및 실행 구조 구축, 정부(지자체)·시민의 수평적 협력, 시행 중인 상향식 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및 강화 노력 지속

#### 3. 정책제언

-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적 문화분권체계 구축
- 상향식 계획수립 체계 유지 및 강화
- 문화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보조금 확대, 지역의 문화재정 독립성·지속성 유지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민간부문 문화·예술 활동 및 투자 통계시스템 구축
- 생활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정기적인 생활문화 실태조사

## 1. 들어가는 글

### ● 문화정책의 변화와 동향

- » 1970년 문화정책의 태동한 이후, 80년대 지역문화 정책의 인식, 90년대 문화와 지역의 연계, 2000년대 문화와 도시의 결합, 2010년대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박태선 등, 2014)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로 정책중점 이동·진화
  - 2010년 이후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문화기본법'(2013), '지역문화진흥법'(2014) 제정 등 지역문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 시도

### ● 최근의 문화정책 의제와 지역문화

#### » 청년문화정책

- 일방적 지원이 아닌 자생력 확보 관점의 정책 의제화

#### » 창작활동과 예술인복지 정책

- 의제의 분리 불가능성 인식,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접근하고 정책을 통한 지원 및 개선 지향

#### » 문화기술과 문화산업

- 메타버스-블록체인-인공지능-메이커 문화 등 기술 기반형 문화산업 육성

#### »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문화정책의 운영·작동 플랫폼으로서 지역의 중요성 인식, 2019년 12월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책 의제화
-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의 전개 등과 병행하여 본격적인 논의와 정책 시행

#### » 문화예산 운용과 협력구조 구축

- 문화시설 확충보다 문화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 콘텐츠·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운용
- 정책추진 효과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내 역할 분담 체계 구축(박태선 등, 2022)

### ● 연구의 목적

#### » 연구의 범위

- 문화정책 의제 중 지역문화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지역 간 문화격차 현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자치 담론

#### » 연구의 목적

- 지역문화진흥의 전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의 존재 여부와 형태를 파악하고 대안으로 도입된 문화자치 관련 담론을 정리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2. 문화격차 개념과 실태

### ● 문화격차의 정의

- » 문화활동에의 접근과 이용이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문화 불평등 현상(박용치, 2003)
- »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에 접근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문화주체 간에 존재하고 인식되는 문화접근도와 향유수준의 차이(조권중, 2004)
- » 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주체들에게 문화에 접근하거나 즐기거나 누리거나 이를 통해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조권중, 2004)
- » 본 연구에서는 문화주체들의 문화향유 기회와 만족도에 대한 지역 간 차이의 차이로 정의

### ● 문화격차 해소 필요성(박태선 등, 2014)

- » 인권적 관점: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헌법, 제11조 제1항)
- » 공리주의적 관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문화격차 해소
- » 분배정의 관점: 사회의 규범이나 기준에 의해 경제적·사회적 재화의 분배형태를 규정하거나 기존의 분배구조 내에서 구성원간의 물질적 불평등을 조절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관점의 문화격차 해소
- » 사회적 갈등 해소 관점: 격차로 인한 사회 불안정과 분쟁, 경제성장 저해 등을 예방하고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안정성의 제고를 위한 격차 해소
- » 지역쇠퇴 원인 관점: 문화는 일상적 삶의 질과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과 경쟁력에도 영향, 문화적 쇠퇴에 따른 지역쇠퇴 예방 관점의 문화격차 해소

### ● 지역문화는 지역에 기반한 문화적 현상으로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 형성의 주요 요소

- » 일정한 공간 범위 안에서 생활과 연계된 문화예술의 의미
- » 지역발전 수단, 문화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 요소
- » 삶의 질 제고 등 생활 전반의 활력을 고양하는 유의미한 정책 수단
- » 20세기 중반 이후 제조업 몰락에 따른 지역쇠퇴를 경험한 도시들이 문화예술, 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지역문화에 기반한 산업화 성과 창출 현상을 목도하면서 지역발전 동력으로 인식
- » 문화격차 해소는 지역균형발전, 동반성장의 문화적 토대에 해당

## ● 지역 간 문화격차 분석 틀

- » 지역 간 문화격차는 공급관점의 문화향유 기회와 수요관점의 문화향유 만족도로 구분하여 접근
- »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2021 전국문화기반 시설 총람」에 제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표 1> 지역 간 문화격차 관련 항목

관점	항목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기반	향유정도
문화향유 기회 (공급측면)	문화시설의 개수	문화프로그램 수	문화예술 교육시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문화향유 만족도 (수요측면)	시설이용 만족도	문화예술 관람 만족도	문화예술 관람지역	축제프로그램 만족도

자료: 박태선·이미영·한우석(2015)을 활용하여 재구성

## ● 공급측면: 문화향유 기회

### » 문화시설: 문화시설의 개수

- 수도권 1,118개소(36.2%), 비수도권 1,969개소(63.8%)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시설 양적 격차는 발견되지 않음
- 특·광역시와 도지역의 문화시설 수를 살펴보면 도지역의 분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립도서관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울산의 경우 미술관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 백만 명당 시설 수를 살펴보면 특·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구분지어지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입된 문화시설의 양적 측면에서의 지역 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 한편, 광주·전남은 인구로 표준화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 » 문화콘텐츠: 문화프로그램 수

- 문화콘텐츠 공급측면은 시·도별 문화예술활동 중 시각 및 공연예술 건수를 중심으로 파악함
- 시·도별 문화예술활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2015년 대비 33.5%의 증가
- 수도권은 2019년 21,549건으로 2015년 대비 4,185건 증가하여 24.1%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2019년 22,634건으로 2015년 대비 6,895건 증가하였으며 건수기준으로 수도권을 상회하였고 동기간 동안 43.8%의 증가율을 보임
- 자료에 제시된 기간 동안의 특징은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수도권 중심성을 유지하면서 비수도권이 약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점차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여가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공연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문화소비의 패턴 변화의 방향에 따라 다시 매체 이용 문화소비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기회 축소 등의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잔존

## ● 향유기반: 문화예술 교육시설

- 서울시, 세종시와 도지역의 특징은 공공기관 부설기관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시설 구성비율이 높았고 광역시의 경우 사설학원 및 강습소(대구, 광주, 대전), 개인레슨(부산, 대전), 인터넷사이트(인천), 사설 단체 문화센터(울산) 등 민간 부분 문화예술 교육기관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대전, 강원, 충남, 제주 등은 동호인 모임이 문화예술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구성비율은 문화예술 교육기관의 지역간 격차를 설명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기관 구성 차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 향유정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6년 이후 80% 수준에서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이후 급격히 감소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 관람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지역의 관람률이 평균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관람률에서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비교하면 지역 간 문화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8년부터 점진적인 격차 완화세를 보였으며 전남은 2016년부터 빠른 속도로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격차가 완화되어가는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같은 이유로 2020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 수요측면: 문화향유 만족도

### » 시설이용만족도

- 전체 문화예술 활동 공간 및 환경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다소만족”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 만족도가 높은 시설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 선호하는 시설들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선호의 차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간 문화격차로 해석될 여지는 약한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예술 관람 만족도

- 관람만족도는 다른 영역의 만족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관람 만족도 역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
- 대구, 인천, 울산, 경기도, 충남 등에서 서양음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 대전, 세종 등에서 연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 2014년에서 2019년까지 광역시의 경우는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행사의 대부분을 소화할 정도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2014년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비율이 96.9%에 이르렀으나 2019년 87.6%로 감소
-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5%p 이상의 감소가 이루어졌음
- 전남과 강원은 지역 내 공연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상황 역시 문화향유 영역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

### » 축제프로그램 만족도

-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별히 차이나는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워 이 역시 지역 간 문화격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

## ● 시사점

### » 문화격차 실태에 접근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가 발간한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

### » 문화격차에 대한 관점을 문화향유 기회와 만족도로 대별하고 여기에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 기반, 향유정도 등의 특성을 결합시켜 8개 항목의 통계 정리

### » 국가통계포털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8개 항목 전반적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가 존재한다는 직관을 형성할 수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2019)는 수도권과 비수권 간 지역문화 종합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실태조사 결과로 발표한 바 있음, 다만, 하위요소인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밝힘, 이러한 결과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에서 살펴본 결과와 동일
-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투자에 관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통계만으로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공공부문에 한정된 국가통계의 한계 개선

- 민간영역의 예술활동 및 시장에 대한 통계지표의 개발 및 공시
- 전국, 권역, 광역, 기초 단위의 통계가 제공되어 지역문화 연구 및 실천가, 기획자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투자를 선도하는 정책환경 구축
- 이를 통하여 지역문화에서 생활문화 중심성을 강화하고 문화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협력형 정책 시행

- » 지역 간 문화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결핍과 격차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지역문화진흥과 활성화에 대한 지역의 갈망을 표현
  - 따라서, 지역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향하는 방향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잔존 해 있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의 강화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이용자들의 만족도 등에서 지역 간 문화격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화격차(정부·지자체 차원), 소득, 장애 등 다양한 요소(개인적인 차원)에 기인하는 격차와 결핍이 여전히 존재(노영순, 2016)
  - 민간부문에 의한 투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문화격차 존재(민간투자와 관련된 통계자료 미구축에 의한 착시현상)
  - 한편, 정부 및 지자체는 통합문화이용권(추진주체: 문화누리카드, 행정안전부, 광역·기초지자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선별적 복지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과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문화격차 개선 노력 전개
- » 이에 더하여 생활문화 등 다른 형태의 문화기반을 요구하는 등 문화적 욕구의 다양화에 대한 공급 부적응에 의한 결핍 등도 부족이 아닌 격차로 표현
  - 개인의 문화기반 및 향유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에 대한 정책 반응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 3. 지역문화 활성화 대안으로서 문화자치 담론

#### ● 문화자치 개념

- » 개인의 문화기본권이 보장·실현될 수 있도록 개인 중심의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한 상향식 문화정책
  -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이 행정 중심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김성하, 2022)
  - 행정 및 전문가 중심에서 개인으로, 정부에서 지자체(지역)로 중심을 이동함으로써 기계적 형평성에 기초한 균일하고 일방적인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 방지
- » 지역 주민이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가 실천됨 (김성하, 2022)
  - 정부와 지자체, 시민의 수평적 협력구조를 전제로 한 자율성과 주체성, 지역의 주체적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 특성에 기반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향

##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자체 단위 문화정책의 중요성

### » 지역문화 육성 목적인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년 1월)

- 문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 및 국격 향상과 더불어 문화적 삶을 통한 국민행복 추구에 있음(문화진흥법, 2014)
- 문화의 획일화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성 확립과 다양성 보호, 지역 고유 문화 자산의 발굴·육성에 중점(문화진흥법, 2014)

### » 국민들의 일상은 지역사회를 통해 실현되고 문화향유와 문화적 실천 역시 지역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의 문화정책 추진은 국민의 문화향유, 문화복지와 직결(노영순, 2016)

### » 시대적 가치로서의 가치와 분권에 대한 요구 증가

- 경제·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격차문제에서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음
- 문화·예술에서 개인과 공동체, 지역의 자율성과 자유는 문화와 예술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자 도구화를 방지하는 핵심 기제(노영순, 2016)
- 문화자치는 문화다원주의, 문화민주주의 등 동시대 문화 관련 핵심어들의 중심 가치에 해당

## ● 문화분권은 예산, 인력, 자원, 사업 등의 결정권을 균형적으로 지방에 이양함을 의미

### » 권한과 책임의 균형적 분배를 통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적 권리 보장 실현

### »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관점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는 여건, 인적·물적 가용자원, 지역의 문화적 욕망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책기획 및 실행 구조가 합리적(정보람·이재원, 2021)

### » 다만, 문화분권과 자치는 국가사무의 광역·기초사무 전환이 아닌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지향해야 함

- 지역자원에서 자율권을 획득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가 사업 폐쇄 위기(예: 대전 상주단체 지원사업, 정부의 보조금 투입으로 5년 간 사업 지속 가능해짐)로 치닫지 않도록 문화·예술 사업의 축소·폐지 사례 최소화 노력 필요
- 지자체 숙원사업이나 대체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행복을 위한 보편적 문화서비스로 인식(전환)

##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기능 정립과 협력체계 유지

### » 문화분야 균형발전, 자원배분의 적절성 확보를 통한 격차해소, 체계적인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개선,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문화환경

- » 지역 간 경쟁과 갈등, 불평등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여 제로섬으로 수렴하지 않고 시너지를 창출·확산시키는 관계의 중추적 참여자이자 구심점이라는 중앙정부 위상 정립 중요
- » 문화자치에 기초한 지방이양은 지역 책임성 강화에 기초
  -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권한은 제한적이라기 보다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부의 문화진흥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문화생태계가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 받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4.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 ●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

- » 정부: 지역문화 정책 촉진자·조성자로서 법·제도 개선, 기반 시설 확충 등 환경 조성에 중점, 직접 사업 축소, 효율적·체계적·균형적 예산 재분배, 평가·협력·매개 기능 강화 등
- » 광역지자체: 문화정책 기획·시행, 기초지자체와 정부 매개, 지역 내 문화적 균형발전(기초지자체 간 자원배분 등) 강화, 기초지자체 여건 개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담론의 장 구축/지원 등
- » 기초지자체: 지역 문화자원 발굴·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 지역 문화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 소외계층 지원, 의회와의 문화정책에 관한 이해관계 조정, 지역문화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민관 협력형 로컬 거버넌스 구축 등

### ● 협력적 문화자치 체계 구축

- » 제도정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2조의 ‘지역문화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부-지자체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권한과 책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생활 공간에 기반한 문화자치 활동 강화,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및 지원 등 역량강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 ● 상향식 계획수립 체계 유지 및 강화

- » 지역의 자율적, 주체적 계획수립을 위해 상향식 계획수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자치 관련 법 및 조례(예: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
- » 현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있어 문화자치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

### ● 문화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보조금 확대

- »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등 문화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책분야에서 상향식 접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여건과 자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정책 결정 시스템 도입 필요성 증가
- » 정부기획, 지자체 집행의 하향식 재정배분의 한계 개선과 동시에 지자체의 문화정책 기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기능공유체제로 전환, 지방이양, 포괄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별 실제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보완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지원 방안의 검토 등이 요구됨(정보람·이재원, 2021)

###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 문화역량 및 문화생태계 자생력 강화 등 문화자치 목적 실현을 위한 인력기반 구축
- »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변화 촉진,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 창조,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예; 전남문화기획학교, '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 » 지역문화 생태계 핵심 구성요소인 '사람, 공간, 콘텐츠 등 문화자원'의 공유와 매개 활동을 전담하여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 및 성과 제고

### ● 민간부문 문화·예술 활동 및 투자 통계시스템 구축

- » 통계는 지역의 상대적 문화역량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문화정책 기획의 실효성을 파악 하는 원천자료
- » 정부, 지자체, 시민의 수평적 협력구조에 기반한 상향식 문화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지역 특성과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의 결합을 지향하는 문화자치의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정책기획 및 실행과정, 성과평가 등 환류 등 다양한 단계에서 중요성이 높은 기초자료에 해당

### ● 생활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구축

- » 계획수립 과정에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으로의 계획의 중심축 이동
- » 지역 주체들의 자발성, 공동체성을 유도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의 선제적 시행(조인형, 2022)

## ● 정기적인 생활문화 실태조사

- » 커뮤니티 중심의 향유실태, 인적·물적 자원분포 등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 생활문화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진화
- » 지역 거점별 자발적 변화요소 파악과 정책지원사업 결정에 기여(조인형, 2022)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집중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연구원은 새정부 공약과제 및 민선 8기 시·도정 방향을 토대로 제 분야의 불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신(新)균형성장전략을 연속해 제안함

## ----- | 참고문헌 | -----

- » 김성하(2022), 「문화자치-그 의미와 조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 » 노영순(2016),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박용치(2003), “문화격차와 문화산업의 육성”, 법률행정논집, 제10호, pp.120-147.
- » 박태선·이미영·한우석(2014),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 박태선·이미영·한우석(2015), 「지역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No.503, 국토연구원.
- » 정보람·이재원(2021),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조권중(2004), 「시율시민의 문화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조인형(2022), 「문화담론지\_창」, 봄호.
- » 문화체육관광부(2019),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종합지수 결과발표>, 보도자료.
- » 문화체육관광부(2021; a),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 문화체육관광부(2021; b), 「2021 전국 문화기반 시설총람」.
- » 국가통계포털(KOSIS)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061-931-9343 | ihcho@gjeri.kr



광주전남연구원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

58217 전남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치타워 7·8층  
전화 061-931-9300 팩스 061-931-9393 홈페이지 www.gjeri.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로서 광주전남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